

10_지식재산권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이해

#1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영구적으로 비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할 수 없다면 회사나 내가 가진 기술 혹은 아이템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코카콜라의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 코카콜라 레시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글로벌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오직 소수의 임원들만이 코카콜라의 정확한 성분과 배합 비율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는 독자적인 레시피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레시피의 비밀을 보호하고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이 투자한 비용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코카콜라는 경쟁사로부터 레시피를 지키고자 노력함으로써 독보적인 맛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그로 인해 더 큰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 영업비밀의 필요성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업이 자체적인 비밀 정보를 외부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고, 무단 공개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기밀 정보를 보호하여 경쟁사나 제3자로부터의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렇게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과 개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영업비밀 활용 대상자

영업비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나 사업가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나 전략을 비밀로 유지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창업자는 특허나 다른 지적재산권을 얻기 어려울 때 영업비밀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자나 연구원은 새로운 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보호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마케팅 전문가는 고객 데이터나 마케팅 전략 등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관리는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것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준수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접근 제한, 암호화, 접속 로그 등을 통해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6

※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불가피하게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유출된 정보의 효력을 최대한 무효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유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긴급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

※ 영업비밀 보호 대상

1. 생산 방법

생산 방법은 제품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생산 방법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생산 방법에는 생산을 위한 설계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나 방식, 특정한 혼합물 또는 화합물의 배합 비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판매 방법

판매 방법은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주로 고객 명부나 거래처 정보와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각 판매 경로마다 단가나 판매 대금 정보 등도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관리 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9

3. 그 외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는 주요한 기술상 정보로 간주합니다. 이에는 제품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 보고서, 데이터, 운영 매뉴얼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4. 그 외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료 공급 및 원가 정보입니다. 훌륭한 원재료나 특별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공급 방법이나 가격 설정과 같은 정보들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 간주되며,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는 영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차이

	특허권	영업비밀
보호 대상	특허권이 보호하는 것은 발명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보호기간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비밀로 관리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보호 가능
공개 절차	공개 필수	비공개 유지
출원절차	특허청에 출원절차 필요	특허청에 출원절차 불필요

#10

이어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영업비밀 유출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법」상 업무상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불리며, 이 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12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정의

「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요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보호할 수 있는 특정한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관계를 위해 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약이나 거래 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때, 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4

※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기업 내 임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본인이 무단으로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